

42년만의 설레임... 적벽은 우리 모두의 청춘

화순 이서적벽 23일 개방... '이서적벽제' 개최

화순 백야산에서 발원한 동북천이 향아리 형상의 웅성산을 휘돌아 나오면서 이룬 걸작품이 바로 '적벽'(전남도 기념물 60호)이다. 남도 절경의 대명사 화순 이서적벽 빗장이 42년 만에 풀린다. 지난 1973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물민에 한해 설, 추석, 한식 날에만 별초·성묘를 허가했지만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돼 왔다. 광주시와 화순군은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 하나로 동북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이서적벽을 23일 개방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이서적벽제'를 개최한다. 그동안 이서적벽은 하서(河西), 정암(靜庵), 석천(石川) 그리고 '삿갓시인' 김병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시심을 흔들었다. 지역주민들은 빼어난 풍광으로 잠시나마 세파의 시름을 달래줄 적벽을 다시 만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그립구나! 적벽동천(赤壁洞天)

이명환

층층이 쌓인 분홍의 바위
출렁이는 황금물결
깊숙의 도원경(桃源境)이 여기였던 것을

철조망에 갇힌 지 42년
적벽은 외롭고
창랑천은 구슬퍼
밤마다 되풀이되는 아픔은
가슴 저미는 그리움이였다

춘하추동 사시절
분홍빛 설레임과 초록의 낭만도
지워져 사라지고
단풍잎 지고 눈 내리는 밤이면
애잔한 가슴 다독이며 울먹였었다.

눈을 감으면
비단처럼 일렁이는 물결 위에
떠오르는 사람들
석주(石洲)는 찬탄하고
난고(蘭阜)는 깔깔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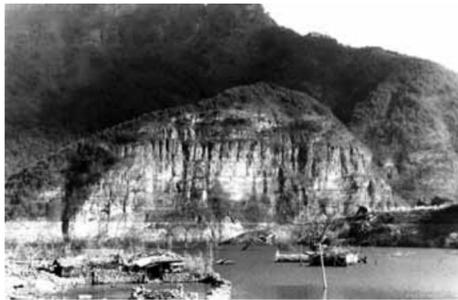
바다 건너온 소동파(蘇東坡)와
달빛 아래 배를 띄워
술잔을 들고 '적벽부'를 읊으면

하서(河西) 정암(靜庵) 석천(石川)이
노를 저어 다가와
금수강산을 노래했다

가슴 벅찬 춘담(春潭)이
신재선생(新齋先生)을 찾아
도원암(道源庵)을 오를 때면

낙화놀이
바위들은 흥겨워 춤을 추고
푸르른 강은
꽃빛으로 물들어
현란한 신천지를 열었었거니

아! 적벽은
우리 모두의 청춘
유년의 동산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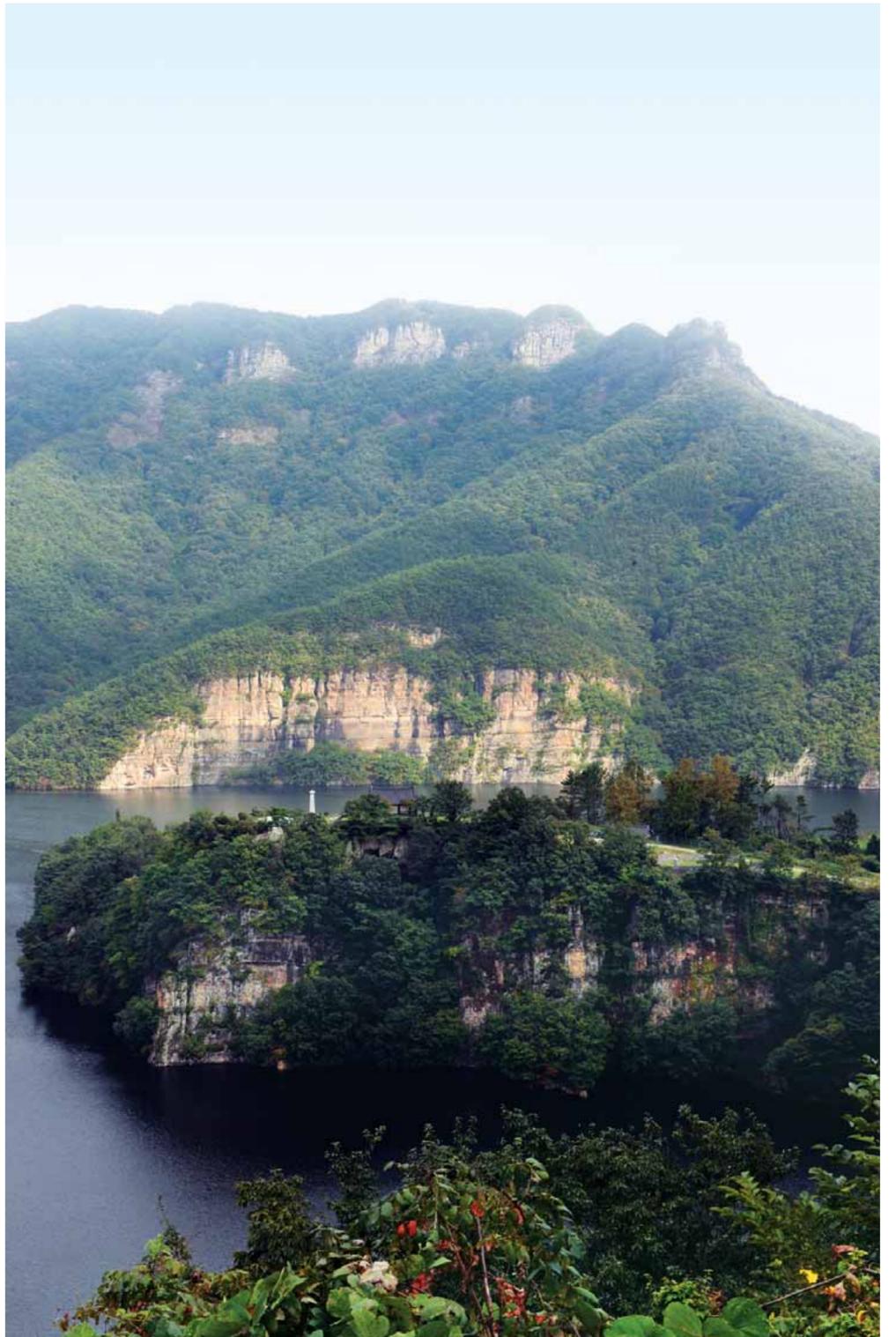
'조선의 10경'으로 꼽히는 이서적벽은 온후한 산세와 맑은 물, 사계절과 역겹의 시간이 만든 걸작이다. 빗장이 풀리기 이전의 이서적벽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개방을 앞두고 미리 이서적벽을 찾은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감상하며 정취에 젖어 있다.



수몰 당시 이곳에는 3개면 15개 마을 5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망향정(望鄕亭)에 올라 이서적벽을 바라보면 물속에 잠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흔히 이서적벽, 보산적벽, 창랑적벽, 물염적벽을 아울러 화순적벽이라 명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 절경은 이서적벽이다.



소설가이자 시인. 소설집 '황토빛 추억', 장편 '달뜨면 가오리다', 시집 '새벽 백두 정상에서' 등.

통나무가구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직수입 최저가 판매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